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최새은(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 임소진(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OBJECTIVE

- 가족인권교육은 “존중과 책임의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가족의 맥락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차별없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가족 안에서 공유 및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는 교육”
-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보편적 권리를 누리는 데에 있어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연령집단별 차이를 볼 수 있음. 이에 본 연구는 가족인권의 필요성을 파악함에 연령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임

METHOD

■ 연구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남녀

■ 조사 시기 (응답자 수)

- 예비조사. 2019.11.13.-11.15. (106명)
- 본조사. 2019.11.21.-11.28. (632명)

■ 조사 내용

가족인권관련 교육 필요성

- 부부관계
 - 부모-자녀관계(부모대상/자녀대상)
 - 인척관계
 - 세대이해
 - 가족젠더
 - 돌봄 수혜자(아이/노인/장애인)
 - 돌봄 제공자(양육자/가족 간병인)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등)

■ 조사 도구

각각의 가족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 ~ '매우 필요하다(4점)'

변인	범위	Freq	%
성별	남	320	50.6
	여	312	49.4
연령 (M = 34.55, SD = 1.70)	20세 미만(14~19세)	109	17.3
	20세 이상 ~ 30세 미만	108	17.1
	30세 이상 ~ 40세 미만	105	16.6
	40세 이상 ~ 50세 미만	106	16.8
	50세 이상 ~ 60세 미만	104	16.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5	26.1
	대졸 이상	467	73.9
주관적	하	136	21.5
경제생활	중	466	73.7
수준	상	30	4.8
형제자매 수	외동	47	7.4
	1명	282	44.6
	2명 이상	303	48.0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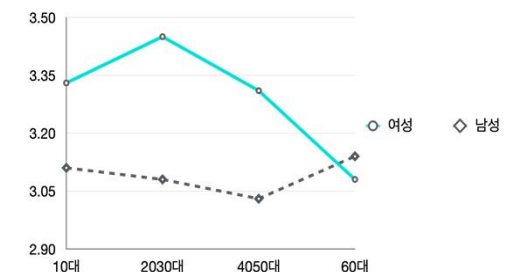
- 가족인권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부부관계, 부모-자녀(부모대상), 인척관계, 가족젠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이었음
- 가족젠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20대가 가족인권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가족젠더와 다양한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의 경우에는 10대가 가장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반면, 60대의 경우에는 모든 가족인권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에 따른 가족인권교육 필요성



연령	부부	부모-자녀(부모)	인척	가족젠더
10대	3.22ab (.61)	3.30 bc (.69)	3.21ab (.73)	3.35 (.66)
20대	3.34a (.51)	3.55 c (.54)	3.36a (.63)	3.31 (.64)
30대	3.32ab (.60)	3.38 bc (.63)	3.29ab (.69)	3.19 (.71)
40대	3.25ab (.51)	3.27 ab (.53)	3.23ab (.62)	3.19 (.55)
50대	3.19b (.54)	3.23 ab (.54)	3.16ab (.56)	3.05 (.60)
60대	3.07 (.67)	3.10 a (.66)	3.06b (.62)	3.01 (.58)

연령	다양한가족에대한이해
10대	3.37(.62)
20대	3.33(.61)
30대	3.30(.66)
40대	3.28(.60)
50대	3.19(.58)
60대	3.13(.51)



CONCLUSIONS

- 젊은 세대일수록 가족관계에서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 인권교육의 수혜경험이 있는 10대와 20대들이 높은 인권 감수성을 보이며,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족 구성원 간 인권 감수성의 차이는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연령 집단 별 인식이 높은 주제에 대해 가족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